

이름: 마크 존 데이먼 (Mark John Damon)

외관 :



백인 남성. 대체로 동글동글하니 귀엽다. 짙은 쌍꺼풀에 반쯤 감긴 둥그런 눈. 눈은 탁한 푸른색. 눈썹이 생기다 말았음. 고동색의 머리는 돈 아깁답시고 짧게 잘라서 정돈하지 않고 다닌다. 피부가 그다지 좋지 않다. 수영은 나의 영혼. 웃이라고는 낡은 정장 한 벌 뿐인 단벌신사. 아랫배가 꽤 나왔음. 늘 피곤해 보이는 인상.

성격 : 이기적인 속물. 교양 없고 식견이 좁다. 귀가 얇아 선동 당하기 쉽다. 허영심에 찌든 도박마. 자아도취에 빠져 있다. 미래에 대한 지나친 낙관이 종종 엿보인다.

나이 : 48세

국적 : 미국

직업 : 손님. 백수. (전) 데이먼 운송회사 사장. 토피카에서 타이어 가공업으로 돈을 만진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아 캔자스 시티에서 소규모 운송회사를 차렸었다. 그럭저럭 수익을 내다가 몇 주 전 카지노에서 이틀에 걸쳐 재산을 모두 날려먹었다. 미주리에 사는 사촌에게 몸을 의탁하러 카혼을 지나던 중, 저렴한 가격에 비해 괜찮은 시설에 이끌려 모호텔에 잠시 투숙하게 되었다.

특이사항 :

- 트럼프 지지자.
- 오른쪽 엉덩이에 큰 점이 두 개 있음. 콤플렉스임.
- 아내가 있었는데 일 년만에 이혼함.

선관 : X